

# 광주교육청, 감사 거부 유치원 4곳 고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사업유치원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종 행정 제재를 취한다.

이들 유치원이 감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소, 교육기능 정상화를 지원할 뜻도 밝혔다

시 교육청은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4곳을 유아교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34조의 시정명령 불응 처벌규정·사립학교법 제48조를 근거로 광주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지역 내 사업유치원 172곳 가운데 감사를 받지 않거나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날까지 유치원 16곳에 대해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유치원 4곳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 정원 감축·보조금 지원 배제 등 제재 감사 협조시, 교육 정상화 지원 계획

지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발조치된 광주지역 유치원 4곳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구 방림동 한 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인 집을 이용해 감사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서구 화정동의 다른 유치원은 감사 진행 도중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설립자 지인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체험활동비·학부보에게 원복비·체험활동비·유치원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교육당국은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으며, 4차례 시정명령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구 봉선동 소재 한 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의 유치원은 교사 개인통장과 설립자·설립자 가족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운영 경비·캠프비·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에 대해 2~5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4곳에 대해 행정 제재도 취한다.

시 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을 배제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2018학년도 2학기 대비 배정 정원기준의 10% 감축 ▲학급운영비 전면 지원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유치원 4곳은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각종 목적 사업비성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 교육청은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각종 제재 조치를 취소, 교육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고발한 유치원에 대해 감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감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사업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 6·13 지방선거 관련

### 사범 1752명 적발해

경찰은 올해 6·13 지방선거 관련 각종 선거사범을 수사, 총 187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33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은 지방선거 전후로 3032건의 선거 관련 사건을 다뤄 5187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포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제공이 96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 선거운동 279명(5.4%) 순이었다.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총 단속 인원은 12.5%(74명) 감소했다. 구속 인원은 52.9%(36명) 줄었다.금품 제공, 불법 인쇄물 배부, 사전 선거 운동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단속된 인원이 줄었지만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선거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사실 공포 등 흑색선전 선거 사범은 13.4%(207명) 늘어난 1752명을 기록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부터 현수막 게시 장소가 확대되면서 현수막·벽보 관련 사범은 17.2%(62명) 늘어난 422명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상대 후보 현수막이나 신호등 같은 안전 설치물을 가리지 않는 이상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허용 개수가 늘었다고 장소 제한도 없어졌다.



책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12일 오후 세종시 아진동 국립세종도서관 현관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어린이와 엄마가 책을 읽고 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1500여권의 책을 쌓아 만들었다.

## ‘5년간 1000억 투입’ 목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문제 투성

목포시가 5년간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과 소통은 부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내정설과 사업지역의 부동산 투기비밀은 악재로 작용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목포시와 문화연대에 따르면 만호동과 서산동 일대에 내년부터 5년간 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897 개항 문화거리'와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897개항 문화거리' 사업은 만호동 일대의 건축 문화자산을 활용해 개항문화거리(3개 루트)를 조성하고 목포진 역사공원 정비 등 10개

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또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는 서산동 일대에 170여원을 들여 낙후된 저층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바다 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근대 역사문화공간이 산재한 만호·유달동 일대에 2019~2023년 5년간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1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줄속 추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코드네이

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외면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 동안 뉴딜사업과 관련해 준비모임 등 12차례의 회의를 갖는 반면 총괄코디와의 면담은 주민들의 요구로 단 한차례에 그쳤다.

또 7개월간 공식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최근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접수마감이 끝나기도 전부터 내장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뉴딜사업지역인 만호동과 유달동 서산동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특정인의 건물 매입 등 소문이 이어지면서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시스

## 인도네시아 남성들, 온라인 도박했다 체포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도박을 한 남성들에게 태형이 집행됐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 주에 거주하는 남성 6명은 온라인 도박을 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 위반 혐의로 이날 이슬람 모스크 앞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돼 등을 각각 7~11대 맞았다. 이들은 올 초 한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도박을 했다가 체포됐다.

체포는 등나무 줄기로 만들어졌으며, 태형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통스러워 얼굴을 찌푸린 남성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군중 중에는 더 세게 때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AFP는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6000여 만 명의 인구 중 87%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지역은 아체 주가 유일하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아체 분리주의자와의 충돌을 종식하기 위해 2011년 이 지역에 한해 이슬람 율법 시행을 허용했다.

이후 아체 주에서는 도박, 음주, 동성애, 혼외정사 등 다양한 경우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태형 등을 집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미야스쿠니 신사 정문 앞 불... 中 남성 체포

12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靖)신사 내에서 불이 났다. 신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야스쿠니신사 관계자가 신사 정문 앞에서 신종자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했다. 불은 곧바로 꺼져 다른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 일본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남녀 2명이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이틀로부터 자세한 경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일본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국인 남성을 건물 침입으로 체포했으며 이 남성은 난징사건에 혐의한다고 적혀있는 것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지난 2011년 12월에도 중국인 남성이 방화해 신사 기둥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해마다 일본 지도층의 참배가 이뤄질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강하게 비판해왔다.

## 시리아동부 전 IS지역서 집단매장지 7개 발견

시리아 당국이 시리아 동부지역의 전 IS 장악 도시 안에서 7군데의 집단 매장 묘지를 발견했다고 국영 SANA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트 알주르주 남동쪽에 있는 아부 카탈 시내에서 발견된 이 대형 매장지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수 백명의 시신들이 발굴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시신들은 IS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처형된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 방위부대가 시리아의 이라크적신원사와 협력해서 발굴한 시신만해도 이미 101구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심한 고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발굴단은 나머지도 더 발굴하기 위해 지금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 佛 스트라스부르 도심서 괴한 총격 4명 사망

프랑스 동부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 도심에서 11일(현지시간) 오후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스트라스부르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사건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성당 인근에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발생했다. 스트라스부르는 유럽의회가 있는 곳으로 파리에서 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져 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총격사건 용의자는 30대로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용의자는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이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내무부는 총격사건이 벌어진 후 주민들에게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부 시민들은 SNS를 통해 도심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